전북현대 제주에 승리…조직력 미완

레오나르도 선제골
이동국 해딩골 2:1승

지난 4월 2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3라운드 경기 전북현대는 제주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다.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가 지난 2일 안방에서 열린 '2016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3라운드 경기에서 제주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다.

승리는 했지만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다.

전북을 상대로 무조건 걸어 잠근 리그 내 여타 팀들과 다르게 굉장히 공격적인 경기운영을 보였다. 김호남과 김현, 정영총으로 3톱을 구성한 제주는 많은 공격수를 바탕으로 좌, 우, 중앙 등 모든 방향으로 공격을 전개했다.

하지만 전북은 공격축구로는 어떤팀에게도 밀리지 않는 클럽이었다. 슈팅을 2개씩 주고받은 전반 14분경 역습찬스에서 레오나르도가 과거 축구스타 베컴을 연상시키는 감각적인 인사이드 중거리슛으로 선제골을 터트렸다.

이어 24분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이재성이 올린 볼을 이동국이 군더더기 없는 시원한 헤딩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이른 시간에 점수가 벌어진 탓에 쉽게 갈 것 같았던 경기였지만 전반 32분 제주의 에이스 김호남이 아크정면에서 전북 수비 7명을 앞에 두고 찬 감아차기가 골망을 흔들며 경기양상을 혼전으로 만들었다.

문제는 후반전 이였다. 좋은 경기력을 보였던 전북은 동점을 만들기 위해 공격 일변도로 나온 제주에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완연하게 밀리는 경기를 했다.

지친 루이스, 이동국, 레오나르도를 빼고 이종호, 김신욱, 한교원을 투입해 경기력을 반전시키려고 했던 노력도 허사였다. 후반 10개의 슈팅을 시도한 제주에 비해 전북의 슈팅은 4개에 그쳤다. 점유율 역시 6대4이상 차이나며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다.

다행이 집중력을 잃지 않은 수비진 덕분에 2대1로 승리는 거뒀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내용이었다.

우승을 차지한 지난 2시즌 보다 훨씬 두터워진 스쿼드를 구축하고 있지만 워낙 주전으로 뛸 만한 선수들이 많다보니 조직력이 완벽하게 완성되지 못한 모습이다.

긍정적인 측면은 조직력이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치러진 6경기에서 4승 1무 1패(리그 2승 1무)라는 준수한 결과를 거두고 있는 점과 조직력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차차 나아질 확률이 높다는데 있다.

최강희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늘은 제주가 열심히 전진하는 경기를 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좋다. 치고 받는 경기에 대해서는 적응이 되어 있다. 요새 계속 내려서는 팀을 상대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특히 전반에 상대의 약점을 잘 활용했다" 라며 공격축구를 추구한 상대팀에 대한 칭찬과 전북 선수단에 대한 평가를 했다.

한편, 이날 제주전에는 1만 6363명의 관중이 입장해 승리의 기쁨을 함께했다.

/김민근기자

가요계 대마초 또 파동…유명 래퍼 등 10명 불구속 입건

쇼미더 머니 시즌3 준우승 아이언 · 아이돌 그룹 멤버 대거 포함

힙합가수들의 대마초 스캔들이 또 터졌다. 가요계는 마약 광풍이 이어서 불어닥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앞서 2011년 힙합가수 크라운제이와 힙합 듀오 '슈프림팀' 멤버 이센스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적발되면서 힙합계에는 대마초 경계령이 내려졌다.

그러다 지난해 힙합 가수 범키가 엑스터시를 투약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받으면서 힙합계에 마약 관련 거센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

게다가 이센스는 다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범키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대마초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10명에는 유명 래퍼 겸 프로듀서,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엠넷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시즌3 준우승자인 아이언은 이름이 공개됐다.

앞서 힙합 기반의 인기 아이돌 그룹의 리더가 대마초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오고 또 다른 아이돌 걸그룹 멤버가 암페타민을 밀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던 만큼 가요계의 눈과 귀가 쏠린 상황이다.

특히 가수들 뿐 아니라 작곡가, 공연기획자, 가수 지망생 등도 함께 경찰에 붙잡혀 힙합계에 대마초 흡연 문화가 전반에 걸쳐 퍼져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항상 대중에 대한 노출로 스트레스와 조울증을 감당해야 하는 연예인은 대마초 등 마약에 연루될 위험이 당연히 크다. 또 창작의 고통을 호소하며 환각제 등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그 중에서도 힙합가수들은 미국 문화의 큰 자장권 아래에 있어 자유롭다는 인식이 강하다. 심한 욕설과 여성 비하 등의 시비에도 자주 휩싸인다. 하지만 흑인들의 사회 저항 의식이 밑바탕에 깔린 장르인 만큼 도덕성보다는 음악성에 좀 더 무게중심이 쏠린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해 사생활이나 작업 과정보다는 음반과 공연 등 결과물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암암리에 마약과 관련 표적이 돼 온 것도 있다.

일각에서는 확대 해석이라며 이런 시선에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힙합가수들이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활동을 하고 음반을 내는 등의 최근 활동 흐름에 대해 시비가 불거지면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음악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음악적 완성도가 면죄부를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정해은기자

영국 프로 선수 150명 약물복용…정부 조사 착수

영국 프리미어리그 소속 축구선수를 비롯해 무려 150여명의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런던의 한 의사를 통해 금지약물을 주입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영국 스포츠계는 물론 전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정부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타임스는 3일(현지시간) 기사에서 영국 런던에 거주하는 개업의 마크 보너가 수천 파운드를 받고 프리미어 리그 소속 축구선수, 사이클선수, 테니스 선수 등에게 금지약물을 투여했다고 폭로했다. 신문에 따르면 보너는 약 150명의 엘리트 프로 선수들에게 지난 6년에 걸쳐 혈액 내 적혈구 수를 증가시켜 근력을 강화하는 에리트로포이에틴(Erythropoietin · EPO), 스테로이드, 성장 호르몬 등을 투여했다.

특히 선데이타임스는 2년전 영국의 반도핑기구(Ukad)가 보너 박사에 대한 증거를 입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실제로 익명의 한 소식통은 선데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Ukad에 관련 증거를 가져다줬는데도 Ukad가 사실상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존 위팅데일 문화,체육 장관은 보도가 나간 직후 "충격과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Ukad와 스포츠 계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근기자

전인지, 리디아 고와 함께 1타 뒤진 3R 공동2위

부상으로 한 달만에 필드로 돌아온 전인지(22 · 하이트진로)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총상금 260만 달러) 셋째 날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인지는 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란초 미라지의 미션힐스 골프장(파72 · 6738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3개를 엮어 3언더파 69타를 써냈다. 사흘 연속 3언더파(전날 중간합계 6언더파 138타로 공동 3위까지 올랐던 그는 단독 선두 렉시 톰슨(미국)에게 1타 뒤진 공동 2위(중간합계 9언더파 207타)에서 우승 트로피를 노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승리하게 되면 지난해 US여자오픈에 이은 통산 두 번째 메이저 우승 기록이다. 한국, 미국, 일본에서 개인통산 12승을 거두고 있고, 이 중 절반인 6승을 한 · 미 · 일 메이저 대회에서 가져왔다.

세계랭킹 1위 뉴질랜드 동포 리디아 고(19 · 한국명 고보경)는 이날 3타를 줄이며 아리야 주타누간, 전인지와 동타로 공동 2위에 랭크됐다.

세계랭킹 2위 박인비(27 · KB금융그룹)는 중간합계 4언더파 212타로 최나연(28 · SK텔레콤), 유선영(29 · JDX), 유소연(25 · 하나금융그룹) 등과 함께 공동 20위에 머물렀다.

/김민근기자

엠넷 걸그룹 육성 '프로듀스101' 데뷔 멤버 결정

음악채널 엠넷의 걸그룹 육성 프로젝트 '프로듀스101'의 최종 데뷔 멤버들이 결정됐다.

1일 밤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프로듀스101' 마지막회에서 22명의 데뷔조 멤버들 중 최후의 11명이 뽑혔다.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전소미가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의 김세정보다 30만표가 많은 85만8333표로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했다. 전소미는 데뷔곡의 센터로 활약하게 된다. 이와 함께 3위 최유정(판타지오), 4위 김청하(M&H), 5위 김소혜(레드라인), 6위 주결경(플레디스), 7위 정채연(MBK), 8위 김도연(판타지오), 9위 강미나(젤리피쉬), 10위 임나영(플레디스)이 최종 멤버가 됐다.

가창력이 뛰어난 유연정(스타쉽), 한해리(스타제국)를 간발의 차로 따돌리고 11위로 팀에 합류했다.

/안진수기자